국내 거주 외국인 유치 확대

국내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온.오프라인 홍보 및 유튜브 채널 활용 마케팅 강화

□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제주관광의 외국인 대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.

□ 제주관광공사는 무사증 입국 제도의 일시 중단과 직항노선 운항 중단 등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이 중단되면서 가중되고 있는 도내 관련 관광업계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○ 지난해부터 국내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. 주한미군은 병력만 3만여 명으로, 가족을 포함하면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일 년에 한 차례 발행되는 가이드북에 제주의 기본정보를 소개하는 한편, 격주로 발행되는 온·오프라인 신문에는 계절별 제주 관광 콘텐츠를 소개해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.

○ 또 주한미국과 가족을 유치하기 위해 도내 관광업계와 공동으로 맞춤형 콘텐츠 구성 및 할인 혜택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.

□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와 자체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.

○ 지난해 국내 거주 일본인과 말레이시아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제주관광을 홍보한데 이어, 올해도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‘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제주여행’을 콘셉트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.

○ 또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도 발굴해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.

○ 이밖에도 전국 지방관광공사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유튜브 채널(Visit Jeju Global)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.

○ 이 채널을 통해 외국인들이 제주를 여행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영어와 일본어, 중국어(번체), 베트남어,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제공함으로써, 단기적으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 영상기반의 제주관광 정보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.

□ 제주관광공사는 위드코로나(With-Corona) 시대에 맞춰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유치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,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해외 거주와 국내 거주 외국인 등 투트랙(Two Track)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.